



#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7. 03

4<sup>st</sup> week

# TTA

## 목차

- 본문**
1. MS.BNY 멜론 등, 블록체인 관련 얼라이언스 결성
  2. 유럽위원회,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 채택 예정
  3. 유럽위원회, 2017 ICT 표준화 롤링 플랜 발표

**기타소식** - oneM2M, '스마트시티가 더 똑똑해진다' 백서 발간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 1. MS·BNY 멜론 등, 블록체인 관련 얼라이언스 결성

(Microsoft, BNY Mellon and others join hands to announce formation of a new blockchain alliance)

보도날짜 2017.3.3.

출 처 PR Newswire

사 이 트 <https://thetechportal.com/2017/02/28/tech-bigwigs-blockchain-alliance-eea/>

- 2017년 3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 액센츄어, BNY 멜론 등 블록체인 관련 '기업 이더리움<sup>1)</sup> 얼라이언스(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결성
  - 대형 은행 및 대기업들은 인터넷 안전거래 촉진을 위하여 점차 블록체인<sup>2)</sup>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 이에, 다양한 기술분야 기업들은 단순 금융분야를 넘어 포괄적 기술범위까지 확대하여, 기업 내 개인적이고 유동적인 블록체인 구축을 위한 기술표준의 개발을 담당하는 EEA 얼라이언스를 결성함
- 이번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는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액센츄어, IC3, 산탄데르 은행(스페인)<sup>3)</sup>, BlockApps, BNY 멜론, CME Group, ConsenSys, 인텔,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누코의 참여로 'ConsenSys 이더리움 스튜디오'에서 추진되었고, 작년 9월부터 소수의 이더리움 개발기업들이 공통 앱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음
  - EEA는 기업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코드를 보다 쉽게 채택하기 위한 표준 및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보안, 확장성을 강화시켜 기업 앱에 더 적합하도록 개발할 것임
  - 특히, 이더리움 기반 기술과 EntEth 1.0이라는 신규 참조 아키텍처를 폭넓게 지원할 것임

1) 이더리움(Ethereum) :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에테리움'의 공동창업자이자 비트코인매거진 창업자, 해커이기도 한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만들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서 사용된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이용해 전 세계 사용자들이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기반으로 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상통화, SNS, 클라우드 펀딩, 주식발행, 부동산계약, 전자투표, 게임 등의 다양한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블록체인(blockchain) : 온라인 금융 거래 정보를 블록으로 연결하여 피투피(P2P) 네트워크 분산 환경에서 중앙 관리 서버가 아닌 참여자(피어, peer)들의 개인 디지털 장비에 분산·저장시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 [출처: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3)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 : 1857년 설립된 스페인 은행으로 유럽의 대표 은행이다. 소매 금융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 외 브라질 및 중남미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산탄데르는 전 세계 1만 4679개의 지점과 1억여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산탄데르는 탁월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금융을 강점으로 세계 금융 위기를 이겨내며 가장 주목받는 은행으로 성장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EEA 이외에도 다른 기술분야 대기업들도 단순 금융분야를 넘어선 블록체인의 확대를 위해 블록체인과 IoT와 협력하였고, 블록체인의 강화된 보안을 위하여 IoT 솔루션과 통합되길 희망하고 있음
- 이 같은 협력은 해커가 봇넷(botnet)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스마트 장치를 점령하는 경우에 블록체인과 IoT 솔루션의 통합이 빛을 발할 것으로, 이는 안전한 블록체인 IoT 솔루션 개발을 위한 우수 표준 플랫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임



## 2. 유럽위원회,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 채택 예정

(New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 is coming soon)

보도날짜 2017.3.2.

출 처 유럽집행위원회

사 이 트 [https://ec.europa.eu/isa2/news/new-european-interoperability-framework-coming-soon\\_en](https://ec.europa.eu/isa2/news/new-european-interoperability-framework-coming-soon_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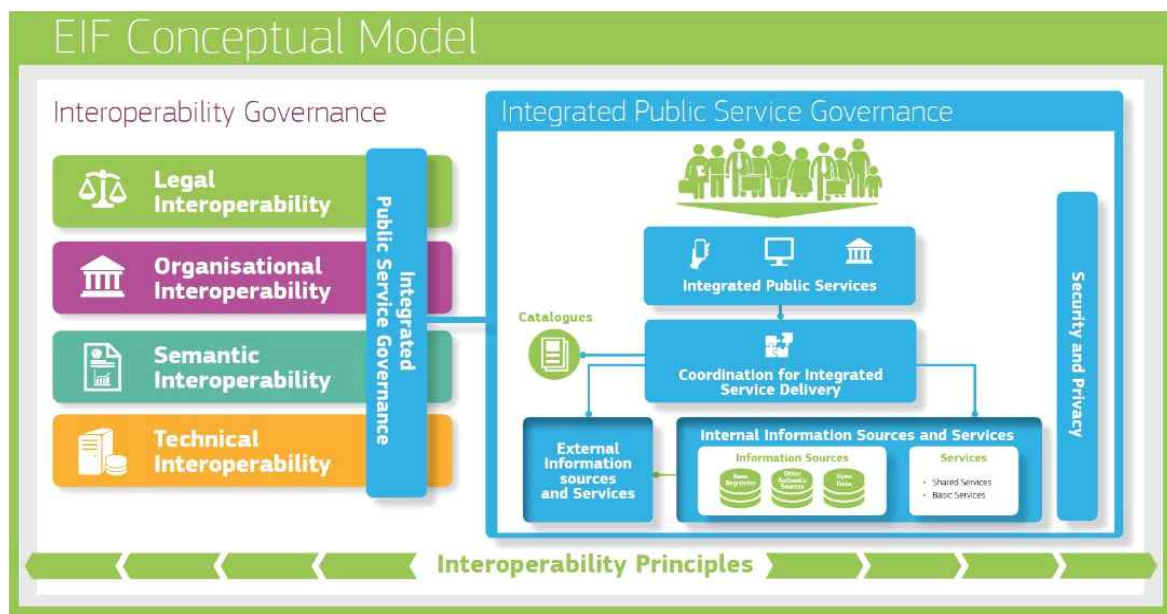
- 2017년 3월 2일,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에 대한 결의를 채택할 예정
  -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조치의 일환으로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를 결의문으로 채택할 계획임
- 이번 프레임워크(EIF)는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단대단 구현과 설계에 대하여 유럽 전반에 공공행정의 공통된 접근법을 제공할 것임
  - 프레임워크 개정에 대한 요구는 공공행정기관, 시민, 기업 및 기타 관련 단체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자문을 통하여 제기되었음
  - 프레임워크(EIF)는 특정 IT 솔루션 사용으로 상호운용성 원리와 모델을 구현하는 권고(recommendation)를 통하여 개발되었음
  - 또한, 이번 프레임워크는 신 유럽정책(공공부분의 정보 재사용 법령(Directive), INSPIRE 법령(Directive)<sup>1)</sup>, eIDAS 규칙(Regulation)<sup>2)</sup>)에 따라 기존 프레임워크를 개정하였고,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신흥 기술동향과 상호운용성 프로그램 실행과 같은 부분들도 고려되었음
- 신규 프레임워크의 추진은 2020년까지의 기술적 우선순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상호운용성 액션플랜(Interoperability Action Plan)'을 참조할 계획임
  - 성공적 프레임워크 구현은 유럽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공공행정기관이 디지털적으로 협력하는 환경 구현에 도움이 될 것임

1) INSPIRE 법령(Directive) : 2007년 5월 15일 발효된 유럽 법령(2007/2/EC)으로, 유럽 전역의 공간 데이터의 공통 인프라 창출을 목표로 발표되었음. 34개의 환경에 대한 주제를 명시하고 있음 [출처: <http://www.housing.gov.ie/>]

\* 원문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7L0002&from=EN>

2) eIDAS 규칙(Regulation) : 2016년 7월 1일 시행된 전자본인확인인증서명(eIDAS: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 국경을 초월한 전자적 확인과 거래에 대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음 [출처: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6년 8월 첫째주]

<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 개념적 모델 >



### 3. 유럽위원회, 2017 ICT 표준화 롤링 플랜 발표

(2017 Rolling Plan for ICT Standardisation released)

보도날짜 2017.3.3.

출 처 유럽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ewsroom/cf/itemdetail.cfm?item\\_id=90](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ewsroom/cf/itemdetail.cfm?item_id=90)

사 이 트 [96&lang=en](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ewsroom/cf/itemdetail.cfm?item_id=90)

\* 참고 [http://www.agefriendlyeurope.org/sites/default/files/GROW\\_Rolling\\_Plan\\_ICT\\_2017\\_Executive\\_summary\\_170222.pdf](http://www.agefriendlyeurope.org/sites/default/files/GROW_Rolling_Plan_ICT_2017_Executive_summary_170222.pdf)

- 2017년 3월 3일, 유럽집행위원회 '2017년 ICT 표준화 롤링플랜' 발표
  - ICT 표준화 롤링플랜은 ICT 분야의 유럽연합 법률 및 정책과 표준화 활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ICT 표준화에 대한 요구사항과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헬스케어,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수송시스템, 보안, 접근성, 사물인터넷, e정부, 스마트그리드 등의 다양한 ICT 기술 분야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ICT 표준은 프라이버시, 보안 및 접근성에 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ICT 표준과 법률 및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
  - ICT 표준은 유럽 산업을 국경을 넘어 확대되도록 하고, 기기를 상호연결하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유럽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며, 소비자가 다른 디지털 기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디지털 및 국경을 초월한 공공서비스를 통해 지원 받음으로써 유럽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킴
- 2017년 ICT 롤링플랜은 '핵심요소, 사회적 문제, 디지털 단일 시장의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해 ICT 표준화 작업의 우선순위 영역으로, 5G,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의 5가지를 확정하였고, 이를 통해 e-Health,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제조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함
  - 2016년과 비교하여, 전파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sup>1)</sup> 분야의 활동 작업이 완료되어 몇몇 영역이 제외되었고, 5G, 핀테크, 정보 모델링 구축 및 유럽연합 해양의 공통적 정보공유 환경(CISE) 영역을 추가하였음

1) 전파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 신호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사물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태그를 식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판독 및 해독 기능을 하는 판독기(RF reader)와 고유 정보를 내장한 전파 식별 태그(RFID tag), 운용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전파 식별 태그는 반도체로 된 트랜스폰더 칩과 안테나로 구성된다 [출처: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 기타 소식

### oneM2M, '스마트시티가 더 똑똑해진다' 백서 발간

- ▶ 출처 : <http://www.onem2m.org/news-events/news/138-onem2m-reveals-why-smart-cities-must-become-smarter-if-they-are-to-be-truly-valuable> (2017.3.7.)
- 2017년 3월 7일, oneM2M '스마트시티가 더 똑똑해진다(Smart Cities Done Smarter)' 백서 발간
  - oneM2M은 이번 백서를 통해 수평적 플랫폼의 신규 배치, 판매업체 독점을 피하기 위한 공개표준, 수직 배치를 위한 어댑터 및 개방적이고 의미론적 데이터와 같은 주요 배치 요구사항의 스마트 시티 글로벌 청사진을 제시함

